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건선

성별 남성

나이 19세

직종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는 2019년 1월 21일에 □사업장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 C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 16일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여 로컬 피부과에서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5회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었다. 2019년 8월 26일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전신에 홍반성 비늘 모양의 판이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20세가 되던 2019년 9월 9일 조직검사에서 건선 소견 관찰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절삭유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컴프레서를 사용하면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질이 피부 및 전신에 튀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다. 근로자는 입사한 초기 볼트 체결 방식의 단품 조립 업무를 12일 정도 수행한 이후 약 6개월간 프레스 절단 작업을 하였고, 프레스 작업이 없는 경우 수평 드릴로 횡으로 구멍을 뚫는 가공작업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MSDS에 따르면 가공작업 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윤활유, 유압유, 방청유 등의 금속 가공유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업 중 작업복 2벌을 지급받아 이틀에 한 번 세탁하며 착용하였고, 마스크, 팔토시, 앞치마 등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공장 내부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서 기계에서 방출되는 열로 매우 무더운 작업환경이었으며, 별도의 냉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땀으로 보호구가 젖을 정도였고 반팔을 입고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업장에서는 MCT 가공 및 프레스 절단 작업 시 방진마스크, 안전화, 귀마개, 투명 비닐장갑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진마스크는 직원들이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장 내 환기는 창문 등을 통한 자연환기와 MCT설비 등에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3. 해부학적 분류

- 피부 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 16일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여 피부과의원 에서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5회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었다. 2019년 8월 26일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건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진료받았다. 증상으로 소양감, 통증, 및 분비물에 대해 호소하였고, 전신에(두피 포함) 21% 이상의 홍반성 비늘 모양의 판이 관찰되었다. 항핵항체 검사에서는 음성 소견을 보였다. 20세가 되던 2019년 9월 9일 조직검사서 건선 소견을 보였고, 전신에 병변이 분포하였다. 경구 항히스타민과 항알러지약을 처방받았고 광선치료를 시행하였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9년 11월 14일 타 대학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방문하여 기타 유기용제 독성 효과와 부상병 상세불명의 앨러지로 수진하였다. 2019년 11월 업무를 중단한 이후 증상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피부 병변과 가려움증이 남아있는 상태이었다. 근로자는 그 밖에 관절 근력 약화를 주장하며, 2019년 7월경에는 손과 팔에 경련 증상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1월부터는 증상이 재발하여 현재 몸통의 앞과 뒤, 발목과 종아리 뒤 부위에 발진이 있다. 근로자는 현재 용접과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너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근로자는 2남 1녀 중 둘째로 형제 모두 알레르기 비염이 있지만 아토피나 건선 가족력은 없었다.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 두 달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신다고 진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남, 1999년생)는 만 20세가 되던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조직검사를 통해 건선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 C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다. 근로자는 근무 중 프레스 절단 및 C가공 작업을 하는 동안 금속가공유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화학물질과 상병과의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